

“올해 아버지 기일은 우리 가족에 73년만의 광복”

함평양민학살사건 73주기 추모식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대상 가족들
“73년 한·누명 벗어나길...” 호소
군경 총살에 살아남은 안중필씨
“연좌제 두려워 피해 숨기며 살아”



30일 함평군 월야면 함평사건희생자 추모공원에서 유족들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있다.

“올해 아버지 기일(忌日)은 우리 가족에게 73년만의 광복이나 다름없어요.”

함평양민학살 희생자 유족 박모(73)씨는 30일 함평군 월야면 함평사건희생자 추모공원 내 희생자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1951년 아버지가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숨진 이래 73년이 지나도록 진실 규명은커녕 피해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 살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18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박씨 아버지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희생자로 인정하자, 박씨는 용기를 내 처음으로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함평사건희생자 추모공원에서는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 주최로 73주기 함평양민집단학살희생자 합동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에는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고인들을 추모했다.

박씨는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들이 고통스러운 73년을 보냈을 것이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부모와 가족이 이유 없이 ‘빨갱이 부역자’, ‘반동분자’ 등 명을 지고 희생당했음에도 다른 사람과 같이 아픔을 나누지도 못한 채 숨죽이며 살아왔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박씨의 아버지 고(故) 박평재(당시 24)씨는 1950년 11월 함평군 신광면에서 한국 경찰의 총탄에 희생됐다. 박씨가 태어난 지 3개월일 때였다.

박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일본 유학파로 1945년 귀국한 뒤 고향인 함평군 대동면에서 농사를 짓는 정박아 마을 이장을 지냈다.

5년 뒤 한국전쟁이 터지자 밤마다 평재씨는 빨치산의 식량 제공 및 협조 요구에 시달렸고, 결국 외갓집이 있는 함평군 손불면으로 피신하려다 중간 지점인 신광면에서 이유없이 경찰의 총에 맞아 희생됐다.

이후 함평군 일대에서는 평재씨를 쓴 경찰이자

가해자가 사실은 친구였고, 그가 이유 없이 친구를 숨지게한 과오를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박씨는 연좌제가 두려워 아버지에 대해 한마디도 못 꺼낸 채 숨죽여 살아왔다. ‘군경이 일으킨 사건에 가족이 연관돼 있으면 안된다’는 이유로 공식 문헌에서 번번이 좌절했다.

박씨는 “남편을 잃고 홀로 세살 터울 누나와 저를 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해외 유학도 보내준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다”며 “아버지 명예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가셨으면 좋았는데 2002년에 너무 일찍 눈을 감으셨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추모식에 참석한 다른 유족들도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었다.

김정숙(여·74)씨도 지난 8월 아버지 김영환(당시 23)씨가 군경에게 피살당한 사실에 대해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김씨는 아버지가 1951년 함평 손불면 동암리에서 농사를 짓던 도중 난데없이 군경에게 끌려갔다

고 설명했다. 군경은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씨의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영완씨 등 세 명을 구금했으며 그 중 영완씨를 살해했다.

김씨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도 우리 가족은 어디에 합부로 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었다”며 “진실규명이 빠르게 이뤄지고 배·보상 판결까지 이뤄져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고 말했다.

군경의 무차별 학살 현장에서 총을 맞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안중필(75)씨다.

안씨는 세 살이었던 1951년 1월, 함평군 월야면에서 어머니 강영주(당시 25)씨의 등에 업힌 채 군경으로부터 “마을 사람들 다 나와라”는 말을 들었다. 군경은 마을 사람들 수십명을 쏜새우더니, 돌연 인민군에 가담했다는 등 이유를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이 사건으로 안씨는 영덩이애, 어머니 강씨는

팔다리와 복부 등에 총상을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안씨는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민간요법으로 호박을 짓이겨 환부에 눌러 대며 고통을 참았다.

안씨는 “몸이 불편해 일도 제대로 못 하는 몸이 됐는데도 보상을 커녕 흑시 연좌제로 처벌당할까 봐 피해 사실을 남에게 꺼내가지자 어려웠는데, 이제야 73년 한스러운 삶을 돌려받을 길이 생겼다”며 빠른 진실 규명 및 국가의 배·보상을 촉구했다.

진화위는 지난 8월 21일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함평지역 주민 42명과 부상자 1명 등 총 43명을 함평군 경사건 희생자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진화위에서 결정한 한국전쟁 전후 함평 지역 희생자는 총 1612명에 달한다. 한편,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는 30일 한국전쟁 전후 함평지역 생존자 13명의 증언을 담은 증언록 ‘나비의 꿈 함평’을 출간해 추모제 현장에서 배포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예약 잘못 수백만원 호텔료 반환 소송 항소심도 패소

해의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숙박 예약이 취소되지 않아 요금을 지불한 고객이 한국 회사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 했지만 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씨가 H사를 상대로 제기한 호텔료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일 해의 H사 온라인 예약 사이트를 통해 호텔 방 6개(1박)를 예약했다.

하지만 예약이 잘못돼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슈퍼 트윈룸 6개가 7박으로 예약됐다. A씨는 상담원에게 지속적으로 예약취소를 요구했으나 취소가 되지 않아 490여만원이 결제 됐다.

A씨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H사는 한국에 있는 플랫폼으로 통신판매업체이므로 반환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A씨는 “H사와 미국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결국 한 회사로 볼 수 있어 환불 의무가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H사는 대한민국 소재 호텔예약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통신 판매 업체로 미국본사의 마케팅 보조서비스 법인에 불과하다”며 “A씨가 숙박 계약을 한 본사 측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H사를 상대로 호텔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모와 함께 외국 거주 자녀 부모만 귀국해도 병역 대상”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면서 병역연기 처분을 받았다가 부모가 귀국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천수)는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A(34)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11살의 나이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병무청은 A씨가 24세 이전 출국자라는 이유로 지난 2013년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다. 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에 명시된 ‘부모와 같이 계속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판정검사 연기 처분이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A씨 부모는 귀국했고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병역의무 부과가 있을 예정이라는 사전 안내와 A씨 부모가 3개월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유예기간을 통보했다.

A씨는 올해 2월 국외 취업 또는 국외 이주를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은 병역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부모와 별도로 미국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평양민학살 희생자 유해 발굴 개시...매장 추정 16개소 대상

해남·신안도 발굴 작업 속도

함평군이 ‘함평양민학살’ 사건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개시한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부터 유해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요청받은 데 따른 조치다. <3월 14일자 광주일보 6면>

함평군은 월야면 월야리 521-9번지에서 함평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해를 발굴할 전문 업체를 공

모하기 위해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해 전국 14곳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함평, 해남, 신안 등지에서 유해매장 추정지를 선정했다.

함평군은 유해매장 추정지 1개 지역 16개소 총 450㎡내외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유해가 최대 16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자 모집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며 오는 11월부터 입찰을 받기 시작한다. 내

년 1월에는 발굴을 시작해 6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해남군과 신안군에서도 유해 발굴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해남군은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산 94 일대(발굴면적 540㎡)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수행할 업체와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을 마쳤으며, 다음달부터 발굴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자도는 일명 ‘갈매기섬’으로 불리는 곳으로,

1950년 6~7월 경찰이 예비검속을 벌여 해남 보도연맹원 수백명을 끌고 가 무차별 학살을 했던 곳이다. 진화위는 이곳에 총 300여구의 유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안군 또한 다음달 중 신안군 임자면(발굴면적 900㎡)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할 용역 업체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1950년 8~10월 대한청년단과 같은 우익활동을 했거나, 경찰·간수 등 공무원 가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곳으로, 진화위는 이곳에 최소 30구에서 50여구의 유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